



# 가정예배

2025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즐거운 설 명절 되세요



대한예수교장로회

**화명중앙교회**

HWAMYEONG JUNGANG CHURCH

예 배 순 서 1.28.(화)

신 앙 고 백 ..... (뒷면 참조) ..... 다 같 이  
찬 송 ..... 찬송가 552장 ..... 다 같 이

기 도 ..... 말 은 이  
성 경 봉 독 ..... 창세기 50:20 ..... 다 같 이

20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말 씬 ..... 선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 말 은 이  
주 기 도 문 ..... 다 같 이

### 선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오늘 말씀은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이, 과거 자신을 버렸던 형제들을 다시 만났을 때에 한 말입니다. 과거 형제들은 요셉을 질투하여 죽일 생각으로 구렁텅이로 밀어 넣었고, 차마 죽이지는 못했으나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아넘겨 요셉으로 하여금 혹독한 삶을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안 상태로 오랜 시간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야만 했고, 아마 형제들 자신도 가책에서 자유롭지 못했을 것입니다. 더욱이나 당사자인 요셉은 생각지도 못한 종살이, 감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도대체 선한 요소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형제들의 미움, 생이별, 종살이, 누명, 무엇하나 긍정적인 요소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비극일 것만 같은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손이 개입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셨기에 요셉은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요셉으로 하여금 삶의 각 스텝을 밟아 나가도록 하셨고,

이로 말미암아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의 자리까지, 더욱이나 자신들의 가족을 책임질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입장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총리로서 이제 가족들 앞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창 50:20)”

우리의 인생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만 있기에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일만 겪어서 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그 모든 요소를 어우러지게 하여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에게만이 모든 답과 소망이 있습니다. 요셉은 환경이 나쁘다고 낙심하지도, 권력이 주어졌다고 교만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선택들을 행했습니다.

더욱이나 선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했다는 요셉의 말씀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웅덩이와 수렁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골짜기를 통과할 힘과 능력이 생겨날 줄을 믿습니다.

2025년에도 우리에게는 다사다난한 삶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부화뇌동하고 일희일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른 선택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을 책임지시고 지키실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요셉처럼 하나님께 삶을 의탁하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선한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선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믿음으로 굳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배순서

설날 가정 예배

1.29.(수)

신앙고백	..... (뒷면 참조) .....	다 같이
찬송	..... 찬송가 64장 .....	다 같이
기도	.....	말은 이
성경봉독	..... 전도서 12:1-2 .....	다 같이

- 1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 2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말씀	..... 여호와를 기억하자 .....	말은 이
주기도문	..... (뒷면 참조) .....	다 같이

여호와를 기억하자

인간은 무한한 존재가 아닌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일에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일이 잘 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면, 자신에 대한 지나친 확신으로 인해 아버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분배받아 집을 떠났지만 아버지가 염려했던 대로 철저히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탕자의 어리석은 확신은 결국 그를 실패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신에 대해 지나치게 확신할 때, 유익보다는 위기에 빠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전12:1)”고 말했습니다.

전도자가 말하는 ‘청년의 때’는 인생에서 자신을 가장 신뢰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 외에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네 눈이 보이는 대로 쫓아 행하라(전11:9)”입니다. 즉, 자신이 신뢰하며 확신하는 것을 속히 행하는 것이 삶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아님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너는 청년의 때, 곤고한 날이 오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날이 가까이 오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전12:1)”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2025년 설날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청년의 때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죽을 때가 있듯이 젊음에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모인 우리 모두는 어리석은 확신에 이끌려 삶을 낭비하지 않길 바랍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전12:2)”

**둘째, 창조주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창조주를 기억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지만, 이 특별한 은혜에 무관심하면 그 누구든 창조주를 기억할 기회를 잃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주를 기억할 수 있도록 주신 기회는 죽음 전까지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에게도, 청년에게도, 어른에게도 어김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창조주를 기억할 기회는 바로 지금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우리에게 죽음이 임하기 전, 즉 “은 줄이 풀리고 금 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위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전12:6-7)”고 말한 것입니다.

사람은 추억으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좋았던 시절을 떠올리며 계속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추억은 부자라고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덜 가지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추억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좋은 추억을 쌓기 위해서는 노력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이전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추억으로 남기는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예배순서

1.30.(목)

신앙고백 .....	(뒷면 참조) .....	다 같이
찬송 .....	찬송가 430장 .....	다 같이
기도 .....	.....	말은 이
성경봉독 .....	시편 1:1-2 .....	다 같이

### 1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 2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 ..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이 복이라 ..	말은 이
주기도문 .....	(뒷면 참조) .....	다 같이

##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이 복이라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모두가 다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복”이란 무엇이고, 우리는 “복”있는 자들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이 옳지 않다는 것쯤은 쉽게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실제 내 삶 속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실제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을 “복”이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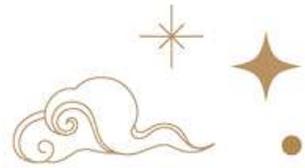
**첫째, 율법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성품을 가르침으로써 우리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 결국 우리를 생명의 길 되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율법은 모호하지 않고, 참과 거짓의 경계가 분명하며,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율법이 선과 진리의 기준이 된다고 여기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복 있는 사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들은 율법에 지적인 관심만 갖지 않습니다. 율법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두렵고 죄의 결과가 두렵다는 이유에서만 율법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단순히 실용주의자들이라서 유용성을 기대하고 율법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그것을 아는 데서 큰 즐거움을 느낍니다.”

**둘째,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중요한 사실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분,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기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위대한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입니다. 요한1서 4장 16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있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에,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우리 개인, 가정 그리고 교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